

무사시노의 들풀과 용수

무사시노 단구(段丘)의 남단에 위치하는 '고쿠분지 애선(崖線)'이라 불리는 단구애(段丘崖)와, 그 하단부 부근의 역층(礫層)에서 침출되는 용수를 이용해 잡목림의 풍치를 살려서 만들어진 근대의 별장 정원입니다.

미쓰비시 합자회사의 사원으로 나중에 남만주철도의 부총재를 거쳐 귀족원 의원이 된 에구치 사다에는, 1913년부터 1915년까지 이곳에 별장을 두고 '주이기엔'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929년에 미쓰비시 합자회사의 경영자였던 이와사키 히코야타가 에구치가로부터 별장을 인수한 이후 '고쿠분지노 이에(집)'로서 친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코야타는 1934년에 화양(일본과 서양)절충 양식의 목조 안채로 재건축하면서 정원 건축으로서 고요테이를 신축함과 동시에 안채 앞의 잔디와 애선 아래의 용수 및 정원 부지를 연결하여 화유식 정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정원의 단구 위에는 잔디밭이 퍼진 서양 풍 정원이 있으며, 애선의 경사면은 소나무, 단풍나무, 죽림, 열목조릿대로 덮여져 있고, 애선 아래는 용수인 지로벤테이케 연못을 중심으로 한 일본식 정원이 있습니다.

1965년 이후의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에 반대하여 본 정원을 지키려는 주민운동이 일어나, 이것을 계기로 1974년에 도쿄도가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비작업을 거쳐 정원은 유료로 일반공개되었으며, 2011년9월21일에 도노가야토 정원(주이기엔)으로서 나라의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새우난초

산나리

초롱꽃

얼레지



지로벤테이케 연못

무사시노 대지에는 무사시노 단구와 다치카와 단구 등 2개의 하안(河岸)단구가 있습니다. 하안단구란, 하천의 중·하류 유역에 흐름을 따라 발달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을 말하며, 이러한 단구면은 지하수면이 깊지 않고 단구에 아래서 용수가 솟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정원도 지하수가 용출되는 애선이 부지 안에 있으며, 이 용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로벤테이케' 연못입니다. 주변에는 단풍나무 등 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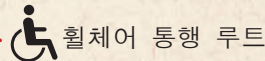
고요테이 (紅葉亭)

수키야즈쿠리 양식으로 지어진 다실. 이름 그대로 연못 주변의 훌륭한 단풍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다화회와 하이쿠를 짓는 모임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시오도시

고요테이 바로 옆에는 우물물을 이용한 시시오도시가 있어 정원에 소리풍경을 더해 줍니다. 시시오도시는 소스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원래는 멧돼지나 사슴을 내쫓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0m 50m



'도노가야토'란?

정원의 이름은, 이 지역의 지명이 옛날에 '고쿠분지 마을 도노가야토'였음에 유래하고 있습니다.

바토 간논(마두관음)

고쿠분지 시내에 11채 남아있는 마두관음 중의 하나. 과거에 말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동물로서 소중히 다루어졌으며, 공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마두관음입니다.



다케노코미치 (대나무의 오솔길)

지로벤테이케 연못으로 이어지는 죽림 사이의 오솔길. 도쿄도 내에 현존하는 일본정원에서는 보기 드문 맹종죽의 숲이 있습니다.

가보쿠엔 (화목원)



등나무시렁

등나무 꽃은 5월의 연휴 경에 볼 만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와사키가가 소유했던 시대부터 있는 등나무의 고목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싸리의 터널

가을이 되면 작은 보라색의 꽃을 피우는 싸리. 9월 중순 경에 볼 만한 시기를 맞이하며, 터널을 덮는 듯 싸리의 터널이 나타납니다.

본관

이와사키 히코야타의 별저로서 1934년에 지어진 서양관입니다. 내부는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융화된 절충 형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